





신을 꿈꾸던 람세스는 어디를 떠돌고 있을까

글_채지형 여행작가(www.traveldesigner.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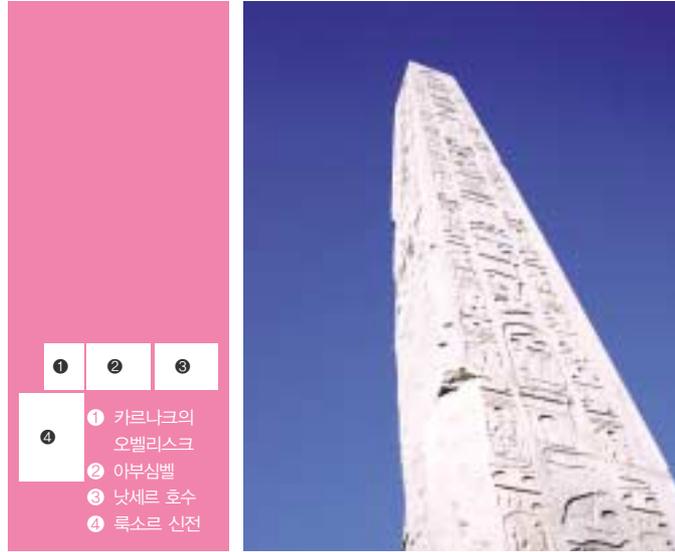
많은 탐험가들을 사로잡아온 이집트. 인류 최초의 고대 문명을 일궈낸 이집트의 명성은 비단 과거의 것이 아니다. 오늘날에도 세계 각국의 여행자들이 인류의 발자취를 찾아 '니일강의 선물'이라고 불리는 이집트를 찾기 때문이다. 과거 풍요로운 문명이 생동했던 이집트는 하나의 국가라기보다는 세계였다. 그래서 이집트의 세계문화유산물 따라가는 여행길은 더욱 특별하다.

마음을 경건하게 해주는 아부심벨 가는 길의 일출

이집트의 대표적인 문화유산 중 새벽에 가야하는 곳이 있다. 바로 파라오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아부심벨'. 아부심벨 주변은 온통 사막이다. 사막의 뜨거움을 피하기 위해서 여행자들은 새벽 3~4시에 일어나 아부심벨로 향한다. 아부심벨에서 가장 가까운 아스완이 280km나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12인승 봉고 버스에 올라타 꾸벅꾸벅 졸다가 고개를 들어보면 사막 위의 반짝이는 별을 먼저 만나게 된다. 아부심벨에 도착할 즈음 세상은 온통 아름다운 색으로 갈아입는다. 해가 뜨는 시간이 되면서 사막은 어둠을 벗고 아부심벨도 서서히 깨어난다.

아부심벨은 이집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꼽히는 람세스 2세가 자신의 위대함을 기리기 위해 세운 신전. 자신을 신과 동격화해 '파라오'라 자처했던 람세스 2세는 67년 동안이나 왕좌를 쥐고 있었다. 그는 바위산을 깎아 높이 32m, 폭 38m에 달하는 아부심벨을 세웠다. 그렇게나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었던 것일까. 그 앞에 서면 경이로움과 함께 끝없는 물음표가 머릿속에 떠오른다. 아부심벨 정면에는 22m 높이의 람세스 2세 거상이 있는데, 마치 살아있는 양 넘치는 자신감을 뽐어낸다. 이정도로는 부족했던 것일까. 거대한 신전 안으로 들어가 보면, 자신을 조각한 또 다른 8개의 열주기둥이 서 있다. 이쯤 되면 자신감을 지나쳐 람세스 왕의 광기가 두려워진다. 아부심벨은 왕 자신을 위한 대신전과 왕비 네페르타리를 위한 소신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신전 내부에는 람세스 2세의 전투를 묘사한 전쟁화가 섬세하게 그려져 있다. 놀라운 것은 람세스의 흔적이 밖에도 있다는 것이다. 신전 앞에 펼쳐져 있는 닛세르 호수와 아부심벨의 조화. 빛에 반짝이는 닛세르 호수의 물결과 흠빛의 거대한 건축물 아부심벨은 묘한 아름다움을 그려 낸다.

닛세르 호수는 길이 500km에 달하는 인공 호수로, 빈곤에 시달려 온 이집트 정부가 아스완 하이댐 건설을 위해 만든 것이다. 한때 하이댐 건설 때문에 아부심벨이 물에 잠길 위기에 처하기도 했었는데, 유네스코의 지원으로 이 거대한 신전이 1036개의 돌 블록으로 분리돼 원래 자리에서 65m 위로 옮겨지게 됐다. 돌 블록 하나의 무게가 30여 톤





에 달했다는데, 사진으로 본 공사 당시의 모습은 경이로울 따름이다.

과거와 현재, 빛과 어둠을 넘나드는 즐거움

테베라고 불리던 이집트에서 가장 역사적인 도시 룩소르. 지금은 소도시가 되어버렸지만, 한때는 인구가 1000만 명에 달했을 정도로 번성했던 도시다. 아스완에서 기차로 12시간,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서는 10시간이나 기차로 달려가야 하지만, 이집트 여행에서 룩소르는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곳이다. 카르나크 신전과 룩소르 신전, 그리고 왕가의 계곡 등 이집트의 문화유산들이 굽이굽이 펼쳐져 있기 때문이다.

이중에서도 카르나크 대신전은 이집트 최대 신전으로, 태양신을 상징하는 오벨리스크와 거대 기둥, 람세스 2세 거상 등이 여행자들을 압도하게 만든다. 남북 길이가 최대 1.5km에 이를 정도. 카르나크 신전은 고대 이집트에서 최고의 신으로 받들어지던 아몬신을 모시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그 규모와 벽화의 정교함이 감탄사를 연발하게 한다.

카르나크 신전은 이집트 역대 왕들이 2000여 년에 걸쳐 조금씩 증축해 온 것으로 룩소르에서도 가장 오래된 신전으로 알려져 있다. 입구에 들어서면 일단 양 머리를

한 스팅크스들이 눈에 들어온다. 그리고 스팅크스 통로를 통해 들어가 10개의 탐문을 지나면 아몬 라 신을 모시는 신전과 대열주실이 등장한다. 이쯤 오면 모두들 고개를 하늘로 치켜든다. 둘레 15m, 높이 23m나 되는 거대한 기둥들을 돌아보기 위해서다. 이 134개나 되는 기둥 속에만 들어오면 여행자들은 크게 뜬 눈을 감을 줄을 모른다. 카르나크 신전의 놀라움은 룩소르 신전으로 이어진다. 룩소르 신전은 카르나크 대신전의 부속신전으로, 카르나크에서 룩소르까지는 참배길이라는 2.5km 길로 이어져 있다. 람세스 2세까지 4세기에 걸쳐 지어진 룩소르 신전은 아몬신의 아내와 아들을 위해 지어졌다. 입구에는 파리 콩코드 광장에서 있는 오벨리스크와 똑같은 오벨리스크가 서 있고, 그 뒤를 람세스 2세 석상이 룩소르 신전을 지키고 서 있다.

더운 날씨도 피할 겸 룩소르 신전은 해질 녘에 둘러보는 것이 좋다. 나일강 옆에 자리하고 있어 해지는 나일강과 룩소르 신전을 함께 보면 유구한 역사를 함께 흘러온 자연의 장엄함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또 밤이 되면 조명 때문에 룩소르 신전은 더욱 화려하게 변신한다. 룩소르 신전을 비추는 조명과 빛이 닿지 않는 어둠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과거와 현재를 드나들다보면, 무한한 행복 감에 빠져있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